



2013년 10월 16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 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이머징 베어마켓 랠리와 태양광 theme

• 이머징마켓 동향

수급 우려 부각되며 상해종합 약세 전환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오디텍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G화학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이마트, 원익IPS, 현대홈쇼핑, LG패션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07(월)	10/08(화)	10/10(목)	10/11(금)	10/14(월)	10/15(화)	
유가 증권	종합주가지수	1,994.42	2,002.76	2,001.40	2,024.90	2,020.27	2,040.96	
	등락폭	-2.56	8.34	-1.36	23.50	-4.63	20.69	
	등락종목	상승(상한)	265(13)	329(5)	325(5)	539(4)	325(8)	439(16)
		하락(하한)	555(0)	481(4)	462(2)	261(1)	482(2)	370(1)
	ADR	95.43	93.61	89.85	94.22	91.04	90.09	
	이격도	10 일	99.62	100.07	100.03	101.07	100.77	101.66
		20 일	100.10	100.34	100.15	101.15	100.80	101.71
	투자심리	40	50	4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250	330	223	254	221	224
	거래대금	(십억 원)	3,436	4,244	3,995	4,724	3,629	3,985
코스 닥	코스닥지수	528.44	528.83	529.04	532.60	531.66	533.12	
	등락폭	-3.57	0.39	0.21	3.56	-0.94	1.46	
	등락종목	상승(상한)	265(7)	329(7)	325(10)	539(9)	325(10)	487(10)
		하락(하한)	555(3)	481(6)	462(2)	261(2)	482(1)	415(5)
	ADR	82.80	81.56	80.93	86.08	86.17	85.85	
	이격도	10 일	99.52	99.56	99.57	100.14	99.99	100.34
		20 일	99.94	99.99	100.02	100.61	100.33	100.51
	투자심리	40	50	4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301	316	304	318	352	359
	거래대금	(십억 원)	1,596	1,738	1,587	1,691	1,827	1,86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00.3	1,180.6	976.4	236.7	166.5	239.5	96.2	29.6	207.824	48.0
	매도	1,984.8	866.4	1,096.4	243.6	121.4	323.7	78.7	35.0	294.2	57.7
	순매수	-184.5	314.2	-120.0	-6.9	45.1	-84.1	17.6	-5.3	-86.3	-9.7
	10 월 누계	-541.0	2,452.1	-1,641.0	-418.5	115.7	-879.1	-115.9	-0.2	-343.0	-270.1
	13 년 누계	-5,068.2	2,930.3	3,646.4	865.4	1,226.4	-4,649.7	-172.7	-2,145.9	8,523.0	-1,508.6
코스닥	매수	1,716.7	96.4	54.7	14.1	5.1	17.5	3.8	2.5	11.6	15.5
	매도	1,693.6	76.3	85.6	17.2	8.7	28.3	10.9	1.2	19.3	27.8
	순매수	23.0	20.1	-30.9	-3.1	-3.6	-10.8	-7.1	1.3	-7.7	-12.3
	10 월 누계	21.7	184.5	-165.3	-26.9	-17.1	-73.6	-22.2	-2.8	-22.6	-40.9
	13 년 누계	-743.6	1,540.1	43.1	-108.9	-61.3	187.5	-148.9	-76.9	251.6	-839.6

이머징 베어마켓 랠리와 태양광 theme

10월 월간 밴드	1,930-2,05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100pt
12MF PER	9.8배
12MF PBR	1.05배
Yield Gap	7.3%p

- ▶ 이머징 베어마켓 랠리: 달러 인덱스 약 2% 추가 약세 가능, 이머징 랠리, 그러나 제한적
- ▶ 신재생 발전 theme에 주목. 대만 월간 매출액 증가 추세, 태양광 밸류 체인별 주요 기업 회복
- ▶ 독일의 전력 시장: 태양광 발전이 소규모 분산형 형태로 급속히 증가

■ 이머징 자산 가격의 반등

2013년에 하반기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무려 7분기만에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나자 7월 이후 유로화는 줄곧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미국 달러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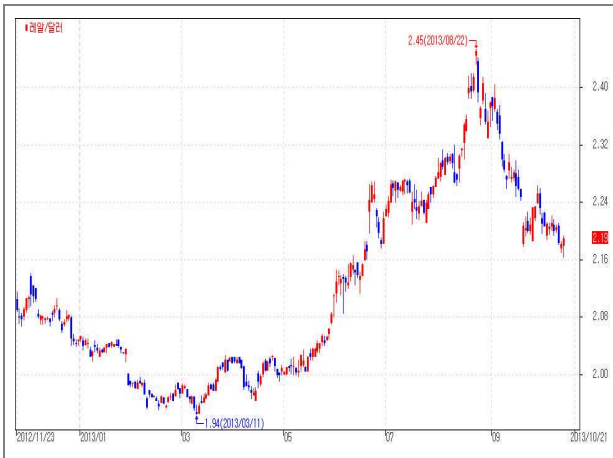


자료: Decisionpoint, 한국투자증권

흥미로운 점은 9월 이후에는 유로화 뿐만 아니라 주요 이머징 통화도 미국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2,3]. 한때 외환위기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지난 여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많은 일들이 마치 ‘한 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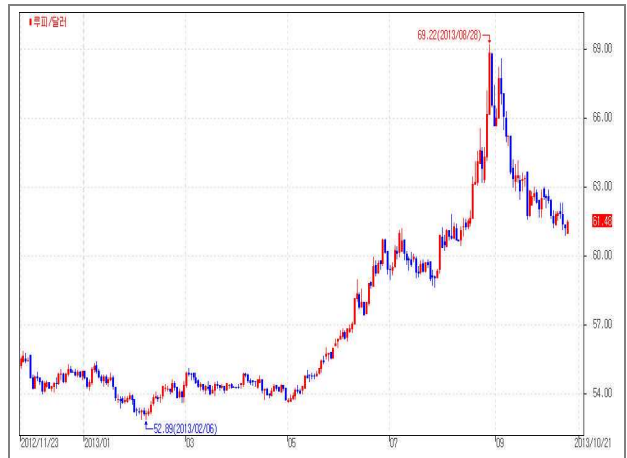
이머징 통화의 강세가 진행되면서 이머징 증시 역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2011년 이후 이머징의 상대강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 7월 이후에는 하락트렌드의 지지선에서 맞고 반등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당분간 이머징 시장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이머징 증시의 베어마켓 랠리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이후 나타난 구조적 패턴인 달러 강세와 선진지수의 상대강도 상승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차 지지선인 79pt 수준에서 달러 약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브라질 레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인도 루피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이머징 시장 vs 미국 S&P500 상대강도



자료: Decisionpoint, 한국투자증권

■ 독일 유틸리티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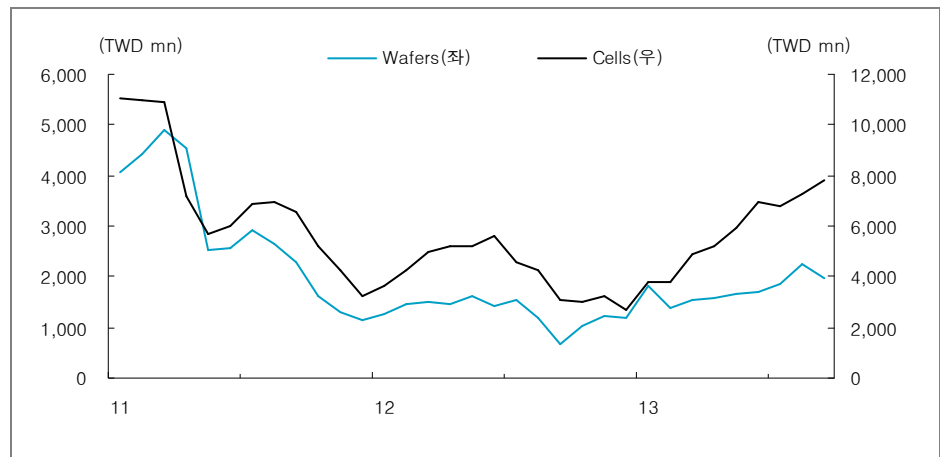
최근 신재생 에너지 theme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산업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중용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길게 보면 지난 40여년간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냉정보다는 열정을 앞세웠고, 투자 측면에서 그 대가는 뼈아픈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다시 주목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경제적으로도 유용한 투자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에 의해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느라 전세계 정부들이 가난해져서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도 하고, 또 정부 주도의 중앙 집중식 발전은 이 시대의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근 신재생 에너지 theme 주식들의 강세는 무엇인가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번에도 ‘냉정을 앞서간 열정’의 결과물일까? 이를 위해 먼저 산업과 기업과 관련한 간단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자(태양광 산업 중심으로).

우선 전반적인 업황을 판단하기 위해 대만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월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그림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만의 웨이퍼 및 셀 생산 업체들의 매출액은 2013년 이후 줄곧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밸류 체인별 대표 기업들의 간략한 상황을 체크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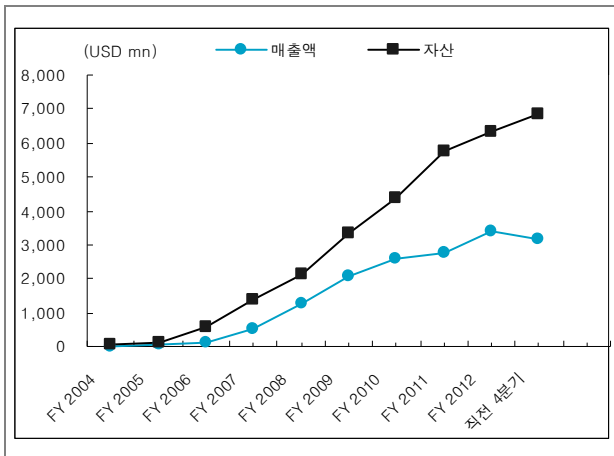
[그림 5] 대만 태양광 업체 월간 매출액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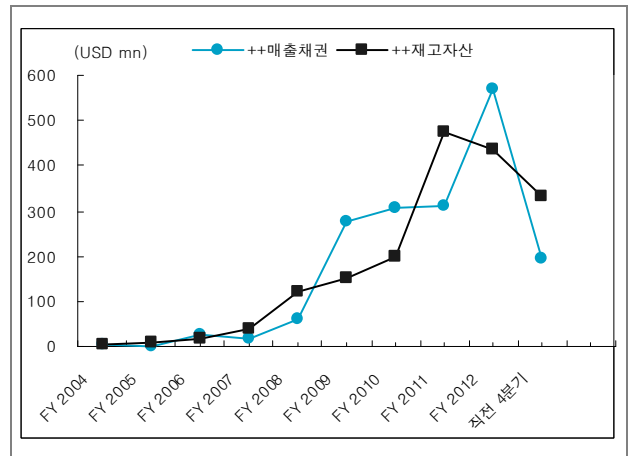
먼저 태양광 모듈의 대표업체인 First Solar를 살펴보자. First Solar의 외형성장은 다소 둔화되었다. [그림 6]을 보면 자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2013년 2분기 직전 4분기 합산액 기준). 그러나 First Solar의 전략은 외형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전체 자산에서도 유형자산 등 외형 투자 금액은 정체를 보이는 반면 금융자산 등 현금성 자산은 크게 증가했다.

[그림 6] First Sola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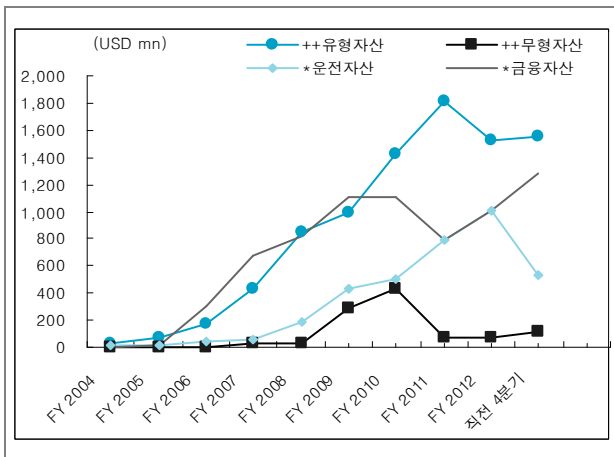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First Sola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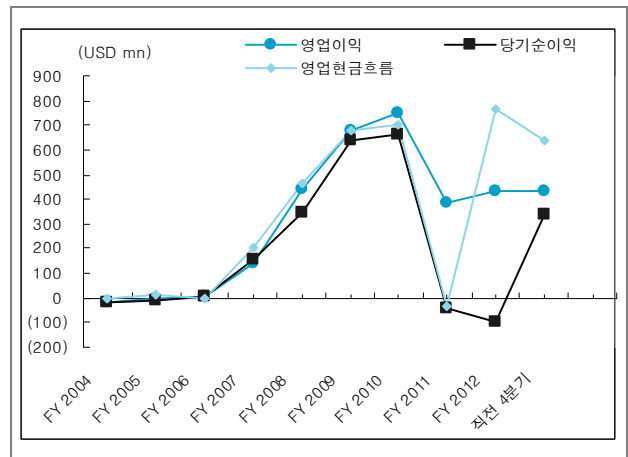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First Solar(3)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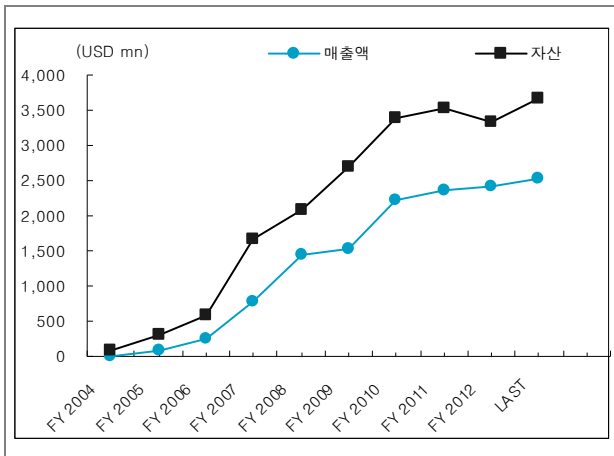
[그림 9] First Solar(4)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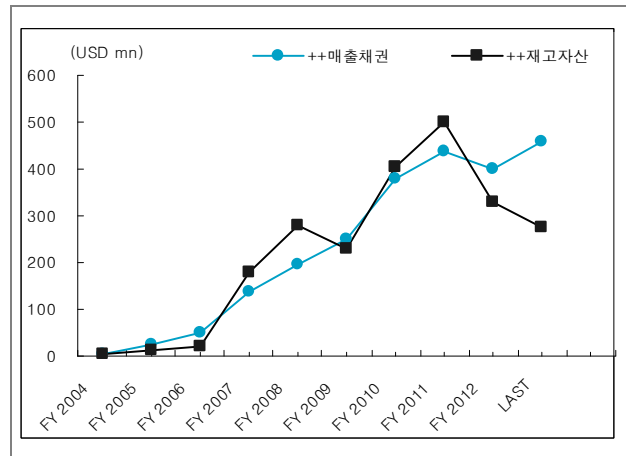
다음은 셀(Cell) 업체 가운데 Sunpower를 살펴보자. SunPower도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과 자산 효율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이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하면 매출액 증가는 더디다. 자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서 특히 재고를 중심으로 운전자본본을 크게 줄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업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할수 있다.

[그림 10] SunPowe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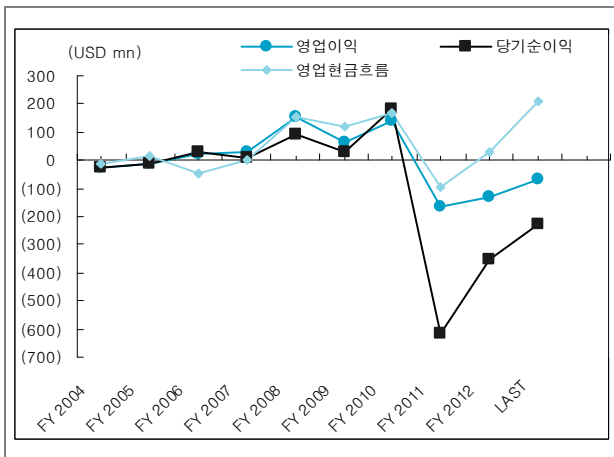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SunPowe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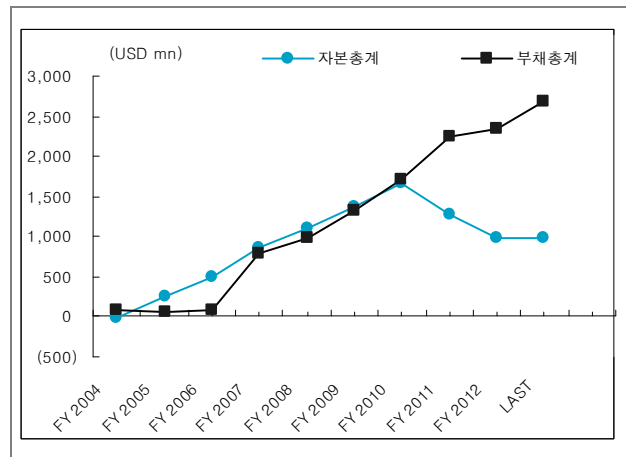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SunPower(3)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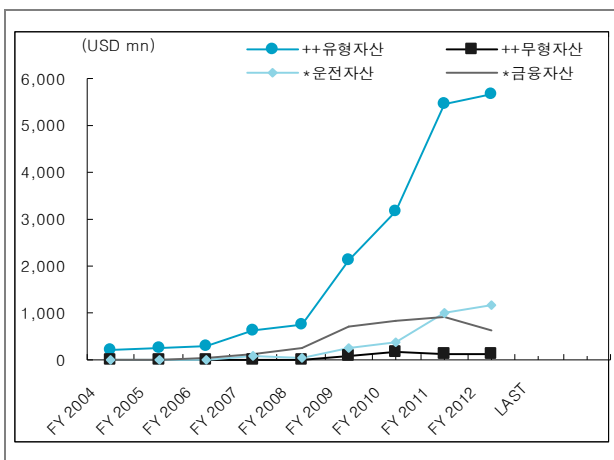
[그림 13] SunPower(4)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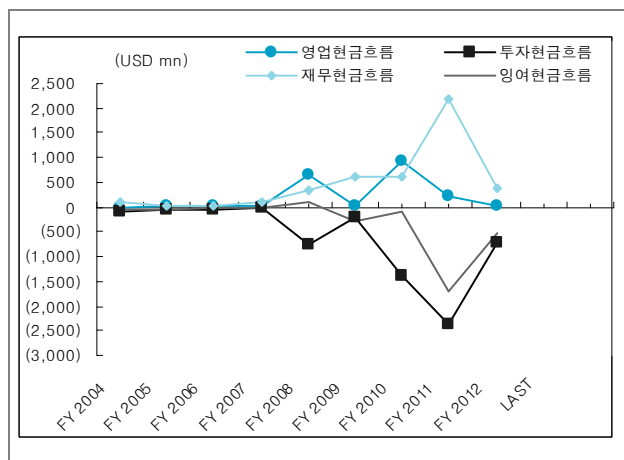
다음은 폴리실리콘 업체로 독일의 Wacker Chemie와 GCL-Poly를 살펴보자 (Wacker의 태양광 매출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가장 변동성이 크고 폴리실리콘 생산 및 capacity 1~2위 업체여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GCL-Poly를 보면 2008년 이후 4년간 유형자산 규모가 무려 7배 증가했다. 모듈과 셀 업체들과는 달리 운전자본도 증가했는데 이는 재고는 줄어들었지만 매출채권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Wacker Chemie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재고 감소, 매출채권 증가). 모듈과 셀에 비해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자산 효율화 및 수익선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다만 전방 산업에 다소 살아나는 가운데 재고가 감소하고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 증가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GCL-Poly(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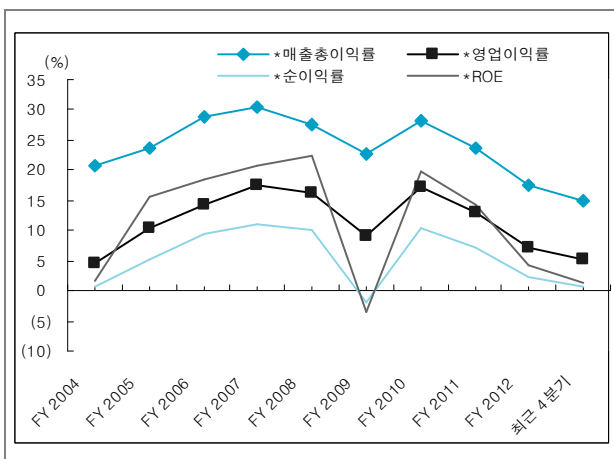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GCL-Poly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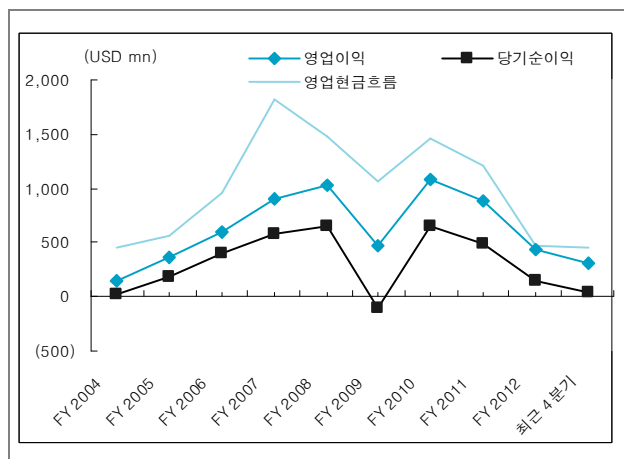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Wacker Chemie(3)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Wacker Chemie (4)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이처럼 아직은 미약하지만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회생의 기미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우리는 이제 신재생 산업도 경제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독일 유틸리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독일의 전력거래소에서 도매 전기 가격이 1Mwh당 -100유로에 거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전기를 팔면서 오히려 100유로를 주는 매우 황당한 경우이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기본적으로 독일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전기가 너무 남아 돌아서 문제이다. 당시에 독일 전력 그리드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약 40GW 인데 비해 총 생산된 전기는 약 50GW였고 그중 절반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으로 생산한 것이었다. 신재생 발전은 추가 전기를 생산할 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반면 석탄, 원자력 등 기저발전은 전기가격이 마이너스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발전소를 멈출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면서 전기를 파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신재생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크게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신재생 발전 용량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경제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이른바 ‘소규모 분산형 발전’ 형태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록 하나의 작은 해프닝에 불과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들은 매우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고 둘째, 그 발전 형태가 지금까지 유틸리티 시장의 패러다임을 좌우하던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소규모 분산형’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 비록 아직은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어쩌면 처음으로 경제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형태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급 우려 부각되며 상해종합 약세 전환

- ▶ IPO, 국제판 등 수급우려와 부동산 규제 강화 전망으로 본토증시 약세
- ▶ 건강서비스 장기계획 등 정책 발표에 따라 관련 업종별 등락 뚜렷하게 나타남
- ▶ 홍콩H는 미국 부채협상 해결 기대 및 본토증시의 업종별 호재로 상승 마감

상해종합 0.1% 하락
컴퓨터, 영화방송, 은행, 통신설비 등 업종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1% 하락해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보합세로 출발 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거래대금은 1,385억위안으로 직전거래일의 1,516억위안보다 축소됐다. 9월 신규대출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IPO재개와 국제판 출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수급부담이 대두됐다. 3중전화 종료 후 여러 지방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확산됐다. 업종별로는 컴퓨터(-1.8%), 영화방송(-1.7%), 은행(-1.4%), 통신설비(-1.1%), 전자(-0.9%), 보험(-0.7%), 석탄(-0.2%) 등이 하락했다. 반면 요식업(6.1%), 농임목어(4.2%), 항공운수(2.7%), 전력가스(1.8%), 음식료(1.3%), 제약(1.3%), 철강(1.1%), 비철금속(0.7%), 석유(0.5%), 철도운수(0.4%) 등은 오름세로 마감했다. 한편 국무원이 건강서비스산업 장기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의료서비스 업종의 주가가 8.7% 급등했다.

■ 홍콩 시장

홍콩증시 0.8% 상승
자동차, 음식료, 철도, 석탄 등 업종 강세

Chung Yeung Day(14일) 연휴를 마치고 출발한 홍콩H지수는 0.8% 상승했다. 17일 부채상환 협상 마감일을 앞두고 미국 양당이 해결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9월 중국 통화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해자유무역구역에서 국제판이 시범적으로 출범할 수 것이란 우려가 동반돼 지수의 반등여력을 제한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음식료, 철도, 석탄, 제약, 기계, 은행, 석유, 시멘트 등이 강세였다. 1~9월 철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3% 늘어났다는 호재로 중국중철(1800 HK) 주가가 3%가까이 올랐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0/15(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33.41	-0.19	1.60	2.70	-1.57
홍콩 H	10,671.17	0.85	2.34	3.44	-6.69
인도 SENSEX	20,601.49	-0.03	3.09	6.30	6.05
러시아 RTS	1,491.36	1.18	1.34	4.84	-2.33
브라질 보베스파	54,170.60	1.92	3.35	3.50	-11.13
베트남 VN	495.72	0.43	-1.29	0.63	19.82
MSCI 이머징마켓	1,022.65	-0.05	1.36	3.56	-3.08

주: 15일 오후 5시 37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미국 디폴트 협상 기대감 속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며 코스피 2,040P선 회복에 성공

- 미국증시는 섣달의 사태와 디폴트를 앞두고 정치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회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반등에 성공,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2,030P선을 회복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미국 디폴트 사태 해결 기대감에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2,040P로 마감. 투신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과 개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33거래일 연속 지속되며 주가 상승을 주도.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주가 하락을 방어하며 소폭 오름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NAVER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지속적인 성장 및 상장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 삼성전자가 내년 무선충전 상용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크로바하이텍을 비롯해 관련 수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3D프린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3D프린터 관련 상장 업체들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됨에 따라 맥스토크, 세중 등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재 조치를 받은 경남기업, 벽산건설, 한신공영, 동양건설 등을 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NAVER(035420) ▶632,000(+8.97%)	‘라인’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모바일 플랫폼 ‘라인’의 글로벌 다운로드 횟수가 올 연말까지 3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서비스 등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라인의 3분기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48% 증가한 1,6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도 교증권거래소 1부시장 또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D프린터 관련주	3D프린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강세 - 전 세계적으로 3D프린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달 하이비전시스템이 3D프린터 완성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등 3D프린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강세 - 맥스토크(141070), 세중(039310, 이상 상한가), 달리(131180, +8.59%), 파브코(101990, +7.29%), 메타바이오메드(059210, +7.11%), 엔피케이(048830, +5.17%) 등 강세
무선충전 관련주	무선충전 스마트폰 상용화 기대감에 강세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이르면 내년 자기공명방식으로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할 것으로 알려지며 수혜 기대감에 강세 - 크로바하이텍(043590), 이랜텍(054210, 이상 상한가), 알에스텍(061040, +8.87%), 다스텍(043710, +4.65%), 와이스파워(040670, +4.52%), 동양엔피(079960, +4.40%)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신세계(004170) ▶253,000(+5.86%)	- 3분기 의류매출이 4분기 연속 역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가운데 내년 이후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신고가 경신
OCI(010060) ▶198,500(+3.12%)	-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정부의 정책 지원 기대감이 고조되며 신고가 경신
현진소재(053660) ▶8,500(+8.70%)	-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수혜 및 미국 풍력시장 발주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며 이를 연속 급등,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오디텍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오디텍 (080520)	14,650 (-1.7)	14,900 (10/11)	- LED용 제너 다이오드 칩 국내 시장점유율 독보적인 1위 업체로 LED 조명시장 성장에 따른 제너 다이오드 출하량 증가세 지속 전망 - 휴대폰용 센서, 자동차용 센서, 그리고 국방 헬기용 센서 매출 증가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전망 - 전방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HB테크놀로지 (078150)	1,725 (+0.9)	1,710 (9/30)	- 올해 삼성전자 OLED 투자 확대에 턴어라운드 시현. 경쟁사 이탈로 검사장비 부분 독과점적 수혜 예상 - 관계사 엘에스텍과의 흡수합병으로 도광판 부분 수직계열화 완성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 확보. 합병 후 전환우선주는 모두 전환된 상황이며 잔여 BW 워런트는 연내 소각 예정 - 삼성전자 OLED A3라인 투자 지연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 수주잔고를 통해 실적 개선 추세 지속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성광벤드 (014620)	30,600 (+6.4)	28,750 (9/09)	- 전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주 지속. 미국 세일가스는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전망 -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성 제고로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률 개선 예상 - 금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 MIX 개선으로 20%대의 고수익성 유지 전망
디지털옵틱 (106520)	19,200 (-2.5)	19,700 (8/28)	- 휴대폰 렌즈 사업부가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보급형 스마트폰 및 신규 태블릿PC 출시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전망 - BW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공장 통합 및 대규모 증설을 위해 발행이었다는 점과 금년 예상익 대비 PER이 5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전망
휠라코리아 (081660)	72,900 (+15.2)	63,300 (8/28)	- 북미 지역의 소비 경기 회복과 중저가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강화로 휠라USA 실적 개선 - 휠라 USA 현재 오더 증가율이 30%대에 달하고 2012년 하반기 대량 반품 매출과 할인 판매로 인한 낮은 베이스로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 - 국내부문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실적 악화 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비에이치 (090460)	12,400 (+7.8)	11,500 (8/07)	- 업종 내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RF PCB를 출시 예정 - 2분기 매출이 1천억원(YoY +87.5%)을 돌파한 가운데 금년 예상이익 기준 PER이 5배 수준(2007년 상장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최대 고객사의 신규 필기인식 스마트폰의 TSP FPCB 주문이 본격화됨에 따라 3분기에도 물량 증가, 제품믹스 개선 등의 우호적인 영업환경은 지속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G화학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G화학 (051910)	323,000 (+6.1)	304,500 (10/11)	5,010	676	515	29,123	11.1
			- 합성수지 중심의 화학 업황 반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전기차 시장 재조명 등으로 영업적자인 중대형 이차전지 부문의 장기 성장성 재부각 가능성 - OLED 재료 및 터치센서용 ITO 필름 등 신제품 추가로 보다 다양해진 전자재료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고려아연 (010130)	306,500 (-6.3)	327,000 (9/09)	5,010	676	515	29,123	10.5
			- 아연과 연 생산 능력확대에 따른 장기 성장 잠재력 보유 - 환경 규제에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제련사 설비 증설이 제한되고 있어 아연과 연 가격 안정화 예상 - 비철금속 산업 최고의 경쟁력, Fumer 증설효과, 귀금속 및 상품가격 안정화 가능성 등을 주목할 필요				
엔씨소프트 (036570)	196,000 (+16.0)	169,000 (7/30)	726	182	164	8,200	23.9
			- 주력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과 길드워2가 중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으로 하반기 해외 매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리니지1과 아이온 등 기존 게임들의 성과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MMORPG인 와일드스타(WildStar)의 연내 출시, 모바일 게임 개발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 기조는 유지될 전망				
LS (006260)	77,800 (+6.3)	73,200 (7/22)	12,821	449	263	9,462	8.2
			-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과 JS전선 문제 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저점 수준으로 추가적인 De-rating 가능성은 제한적 - 하반기 LS산전, LS니코동, LS엘트론 등 자회사들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 유효 - 전선 사업부가 전력선 수익성 향상, 해저 케이블 이익 기여 본격화, 2014년 자회사 상장 모멘텀 등을 주목할 필요				
만도 (060980)	133,000 (+24.3)	107,500 (7/11)	5,730	344	242	13,426	9.9
			- 한라건설과 관련한 재무 리스크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주 매출처의 공격적인 증설과 점유율 상승, 우수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매출처 다변화,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 확대, 전장제품 매출 비중 확대 등에 따른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457,000 (-4.1)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7.2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엔씨소프트, 만도, 삼성전자, 고려아연, LG화학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마트(139480)

매수(유지)

목표가: 300,000원(유지)

종가(10/14): 235,500원

규제를 넘어서다

■ What's new : 9월 영업이익 증가

이마트의 수익성 개선이 돋보인 실적이었다. 이마트의 9월 영업이익은 전년동월대비 3% 늘어난 802억원으로 발표되었다. 기존점매출은 전년동월대비 3% 줄어들었지만 (총매출증감률 -2.1%YoY) 매출총이익률이 전년동월대비 1%p 높아진 25.6%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기존점매출도 양호한 수준이다. 9월 휴업대상 점포 수는 총 148개 점 (프랜차이즈 점포 포함)으로 그 중 98개점이 의무휴업, 50개점이 자율휴업을 실시했는데, 지난해 일시적으로 영업일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올해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정하는 실질적인 9월의 기존점매출은 4% 늘어난 수준이며, 상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마트의 고객traffic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Positives : 지속되는 마진 개선

재고폐기율이 낮아지는 등 PL상품의 효율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패션과 생활용품 등 비식품 부문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매출총이익률 상승폭은 70bp를 기록했다. 단순한 고마진 상품의 비중확대가 아닌,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때 마진 개선이 나타나며, 이마트의 수익성 개선은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Negatives : 이마트몰 매출은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

이마트의 온라인 부문인 이마트몰의 9월 매출은 419억원으로 전년동월 423억원보다 소폭 줄어들면서 연초 20%를 상회하던 성장성이 둔화되었다. 효율 개선을 위한 MD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모바일쇼핑으로 온라인 고객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마트 또한 모바일쇼핑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마트몰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 2%에서 최근 8%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며 연말로 갈수록 비중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마트몰의 매출증가율 둔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모바일쇼핑 확대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가동으로 성장성 재 확보를 예상한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00,000원 유지

9월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 3분기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22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동기대비 2.4% 하락에 그친 양호한 실적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조선히otel 등이 합산된 연결기준 손익은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4분기는 3분기보다 규제 효과가 줄어들며, 2014년에는 거의 사라진다. 4분기와 2014년 실적모멘텀을 기대할 시점이다. 이마트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0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 주가는 2014F PER 11.7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2014F 목표PER 15.0배로 산출되었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0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원익IPS(030530)

매수(유지)

목표가: 11,500원(상향)

종가(10/14): 8,750원

3Q Preview: 줄이은 수주 공시로 실적 개선 신뢰성 확보

■ 반도체 장비 업종 탑픽 유지, 목표주가 11,500원으로 상향

원익IPS에 대해 최근 수주 공시로 높아진 실적 개선 가시성과 2014년 Valuation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11,500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 장비 업종 탑픽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4Q forward PER 12배를 적용했다. 투자포인트는 1) 삼성전자의 capex 확대, 2) 삼성전자 중국 시안 V-NAND 수혜, 3) 삼성디스플레이 OLED 장비 납품, 4) 원익머트리얼즈 실적 연결(2013년 매출 1,300억원, 영업이익 258억원, 2014년 매출 1,600억원, 영업이익 343억원)이다. 원익IPS 연결 실적은 2013년 매출 4,130억원, 영업이익 450억원(OPM 10.8%)에서 2014년 매출 5,650억원, 영업이익 900억원(OPM 16.0%)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매출 인식 지연으로 3Q 실적 전망 하향, 4Q 실적 전망 상향

3Q13 별도 실적 전망을 매출 710억원(이전 960억원), 영업이익 48억원(이전 132억원), 순이익 38억원(이전 105억원)으로 하향한다. 실적 전망 하향은 3Q 삼성전자 중국 시안 Fab에 대한 매출 중 약 250억원의 매출 인식이 4Q로 지연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Q13 별도 실적 전망은 매출 1,310억원(이전 1,070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이전 180억원), 순이익 210억원(이전 145억원)으로 상향한다.

■ 줄이은 수주 공시로 4Q 매출 1,000억원 이상 확보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503억원(9/30), 268억원(10/2), LCD 장비 246억원(10/10) 수주를 공시했다. 장비 수주 후, 제품 납품이 한두달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4분기 실적으로 반영되고, 4Q 매출은 1,000억원 이상이 가능하다. 반도체 장비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팹에 3D V-NAND 생산을 위한 PE CVD 장비 수주이고, LCD는 중국 소주 LCD 라인을 위한 드라이에처의 수주이다.

■ 반도체와 OLED 수주 동시 폭발

삼성전자는 2013년 연간 24조원의 capex 계획 중, 하반기에 15조원(비중 63%)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하반기 투자는 반도체가 연간 13조원 중 9.3조원(72%), 디스플레이가 연간 6.5조원 중 5.7조원(57%)이다. 반도체는 미세 공정 전환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 시안 NAND 팹, 16라인 모바일 DRAM 등의 신규 capa가 추가되고, 디스플레이는 중국 소주 LCD 생산 라인과 함께 A2E(5.5G) 투자가 집행된다. 2014년에도 상반기 중국 시안 Phase1 투자에 OLED A3 투자, 하반기에는 중국 시안 Phase2 증설 투자, 17라인 시스템LSI 투자, OLED 8세대 투자가 기대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340	29	29	18	279	(63.3)	40	34.5	16.7	2.5	8.1
2012A	349	26	23	8	116	(58.4)	39	40.2	8.7	1.2	3.0
2013F	413	45	46	24	356	206.9	59	24.6	11.3	2.0	8.6
2014F	565	90	93	59	866	143.3	107	10.1	5.9	1.7	18.3
2015F	701	129	130	84	1,234	42.5	149	7.1	4.0	1.4	21.4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0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홈쇼핑(057050)

매수(상향)

목표가: 200,000원

종가(10/14): 159,500원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기업가치 재평가 시점

■ 투자의견 매수로 상향, 목표주가 200,000원

현대홈쇼핑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는 200,000원을 제시한다. 2014년 EPS 추정치를 9.4% 상향하고 목표 PER 12.5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현재 주가는 2014F PER 10.0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유통업종 평균 10.9배를 하회한다. 2012년 이후 홈쇼핑 업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현대홈쇼핑의 실적은 부진했기 때문인데, 올해 3분기부터는 달라진 추세를 예상한다. 상반기 중 진행되었던 MD개편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적 개선은 201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 모멘텀도 기대된다. 4분기는 의류매출 성수기이며 현대홈쇼핑은 의류 MD 경쟁력이 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최근 의복 매출 동향도 개선되고 있어서 현대홈쇼핑에 특히 유리한 환경이다.

■ 3분기 영업이익의 상승 반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 늘어난 352억원을 예상한다. 2012년 2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줄어들다가(전년동기대비 기준) 상승 반전된다. 턴어라운드의 가장 큰 요인은 TV쇼핑 부문의 취급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적 부진 기간 동안 MD개편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기존의 상품소싱과 운영을 겸임하던 형태에서 모든 카테고리에 전담 상품소싱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력 보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신규 브랜드 런칭 등 상품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쇼핑의 성장도 긍정적이다. 경쟁사와 달리 현대홈쇼핑의 모바일쇼핑 부문의 취급고는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3분기부터 외형성장에 가세하고 있으며 2013년 연간 취급고는 1,100억원, 2014년에는 2,200억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MD개편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는 구조적, Valuation도 매력적

실적 턴어라운드는 3분기에 이어 4분기,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MD 인력 개편에 따른 신규 브랜드 런칭과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은 단기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 브랜드 런칭의 성공 경험은 반복되며 갈수록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난 5개 분기 동안 부진했던 실적으로 인해 기저효과에 따른 높은 이익모멘텀까지 기대되며 해마다 높은 증가율로 부담이 가중되던 SO수수료도 이제는 10% 전후의 인상률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주가는 PER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동안 홈쇼핑 업계가 누려오던 모바일쇼핑의 구조적 성장 이슈에서 소외되었고 TV쇼핑 부문의 실적 또한 홈쇼핑 업황과 다르게 유독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상기 부정적 이슈가 모두 해소되는 시기로 판단되며 실적 개선과 함께 현대홈쇼핑의 기업가치도 재평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712	155	197	152	12,659	10.6	164	10.5	4.6	1.8	19.3
2012A	760	153	150	104	8,664	(31.6)	162	14.0	5.6	1.5	11.3
2013F	844	151	262	202	16,840	94.4	160	9.5	7.7	1.6	18.8
2014F	958	184	249	192	16,002	(5.0)	194	10.0	5.7	1.4	15.1
2015F	1,073	217	293	225	18,790	17.4	227	8.5	4.2	1.2	15.2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0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패션(093050)

매수(유지)

목표가: 35,000원(유지)

종가(10/14): 30,100원

대표 브랜드의 자존심

■ 소비 회복의 최대 수혜주

LG패션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5,000원(2014F PER 10.4배)을 유지한다. 소비 턴어라운드 시기에 LG패션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첫째, LG패션은 소비 경기의 barometer다.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폭종별, 가격 대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실적은 소비 트렌드나 특정 브랜드의 성패보다는 전체 소비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둘째, 구조조정 강도가 가장 강하다. LG패션의 과거 2년간 실적과 주가는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이월 재고가 줄어들고 비효율 매장 철수를 단행하는 등 펀더멘털은 개선되었다. 순환적인 소비 경기 회복에 동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더해져 실적 개선 폭은 더욱 클 것이다. 셋째, 2014년 PER은 8.9배로 밸류에이션이 업종 내, 내수 3사 중에서 가장 낮다.

■ 2010년 초 수준으로 낮아진 재고 수준에 주목, 향후 P 상승과 비용 효율화

재고 규모가 2010년~2011년 실적과 주가의 대세 상승 시기 초입 수준으로 낮아진 점에 주목한다. 2011년 상반기까지 고성장에 따른 과잉 생산으로 재고가 5,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2,800억원대로 감소했다. 향후 신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판가율 상승, 이에 따른 외형 확대와 원가율 개선이 기대된다. 외형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와 더불어 비효율 매장 대거 철수와 온라인, 아울렛 등의 채널 확대로 고정비를 절감, 판관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법인도 매출 확대와 초기 투자 완료로 손실 폭이 축소될 것이다.

■ 진검 승부는 4분기부터, 이익 성장을 기대한다

재고 구조조정과 효율화 노력에 따른 실적 개선은 3분기부터, 진검 승부는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월 재고 판매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3분기에도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품 생산이 확대되는 4분기부터 실적 개선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14년 영업이익은 1,42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고 EPS 증가율은 48%에 이를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1,411	141	147	96	3,294	4.4	182	12.3	7.0	1.4	13.2
2012A	1,390	102	103	61	2,076	(37.0)	147	15.1	6.0	1.1	7.2
2013F	1,450	107	111	67	2,275	9.6	149	13.2	5.2	0.9	7.4
2014F	1,581	143	150	98	3,367	48.0	185	8.9	3.9	0.9	10.2
2015F	1,690	171	181	125	4,270	26.8	214	7.0	3.0	0.8	11.7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0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07(월)	10/08(화)	10/10(목)	10/11(금)	10/14(월)	10/15(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4.42	2,002.76	2,001.40	2,024.90	2,020.27	2,040.96
	등락폭	-2.56	8.34	-1.36	23.50	-4.63	20.69
	등락종목						
	상승(상한)	265(13)	329(5)	325(5)	539(4)	325(8)	439(16)
	하락(하한)	555(0)	481(4)	462(2)	261(1)	482(2)	370(1)
	ADR	95.43	93.61	89.85	94.22	91.04	90.09
	이격도						
	10 일	99.62	100.07	100.03	101.07	100.77	101.66
	20 일	100.10	100.34	100.15	101.15	100.80	101.71
	투자심리	40	50	40	40	40	4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250	330	223	254	221	224
	거래대금 (십억 원)	3,436	4,244	3,995	4,724	3,629	3,985
	코스닥지수	528.44	528.83	529.04	532.60	531.66	533.12
	등락폭	-3.57	0.39	0.21	3.56	-0.94	1.46
	등락종목						
	상승(상한)	265(7)	329(7)	325(10)	539(9)	325(10)	487(10)
	하락(하한)	555(3)	481(6)	462(2)	261(2)	482(1)	415(5)
	ADR	82.80	81.56	80.93	86.08	86.17	85.85
	이격도						
	10 일	99.52	99.56	99.57	100.14	99.99	100.34
	20 일	99.94	99.99	100.02	100.61	100.33	100.51
	투자심리	40	50	4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301	316	304	318	352	359
	거래대금 (십억 원)	1,596	1,738	1,587	1,691	1,827	1,865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00.3	1,180.6	976.4	236.7	166.5	239.5	96.2	29.6	207.824	48.0
	매도	1,984.8	866.4	1,096.4	243.6	121.4	323.7	78.7	35.0	294.2	57.7
	순매수	-184.5	314.2	-120.0	-6.9	45.1	-84.1	17.6	-5.3	-86.3	-9.7
	10 월 누계	-541.0	2,452.1	-1,641.0	-418.5	115.7	-879.1	-115.9	-0.2	-343.0	-270.1
	13 년 누계	-5,068.2	2,930.3	3,646.4	865.4	1,226.4	-4,649.7	-172.7	-2,145.9	8,523.0	-1,508.6
코스닥	매수	1,716.7	96.4	54.7	14.1	5.1	17.5	3.8	2.5	11.6	15.5
	매도	1,693.6	76.3	85.6	17.2	8.7	28.3	10.9	1.2	19.3	27.8
	순매수	23.0	20.1	-30.9	-3.1	-3.6	-10.8	-7.1	1.3	-7.7	-12.3
	10 월 누계	21.7	184.5	-165.3	-26.9	-17.1	-73.6	-22.2	-2.8	-22.6	-40.9
	13 년 누계	-743.6	1,540.1	43.1	-108.9	-61.3	187.5	-148.9	-76.9	251.6	-839.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9,230
전기,전자	-60,046
화학	9,014
음식료품	-15,715
운수장비	5,965
통신업	-12,742
SK이노베이션	5,956
KODEX 200	-44,320
현대제철	5,621
삼성전자	-38,939
KB금융	5,517
CJ제일제당	-12,882
신한지주	5,368
현대차	-12,581
LG화학	5,278
KT	-7,72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6,959
서비스업	-13,789
운수장비	6,473
통신업	-10,173
금융업	6,320
철강및금속	-7,779
삼성전자	12,621
NAVER	-17,287
현대중공업	6,297
KT	-14,114
GS	5,241
LG전자	-6,849
OCI	5,223
현대하이스코	-6,453
한국가스공사	5,130
제일모직	-6,14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511
운수장비	-5,358
금융업	1,047
유통업	-1,004
전기가스업	565
기계	-983
LG디스플레이	1,603
KODEX 200	-5,626
KB금융	1,317
대우조선해양	-4,836
SK이노베이션	1,174
KODEX 레버리지	-3,801
KODEX 인버스	1,124
KODEX 삼성그룹	-1,628
롯데케미칼	1,059
TIGER 200	-1,47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7,600
음식료품	-6,020
보험	11,784
통신업	-5,897
금융업	8,137
철강및금속	-2,782
삼성화재	10,992
KT	-6,601
SK이노베이션	6,408
NAVER	-6,024
OCI	6,348
KStar 200	-5,548
GS	4,822
CJ제일제당	-4,998
만도	4,098
KODEX 200	-3,11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7,342
전기,전자	-58,258
금융업	26,293
음식료품	-31,932
전기가스업	11,363
통신업	-31,226
SK이노베이션	26,215
NAVER	-34,277
KODEX 레버리지	25,080
삼성전자	-31,779
현대모비스	13,334
KT	-28,002
GS	12,864
제일모직	-25,642
만도	12,162
CJ제일제당	-25,030
현대제철	12,118
KODEX 200	-22,966
KB금융	11,962
현대하이스코	-11,369
현대중공업	11,790
삼성엔지니어링	-9,093
현대차	11,133
LG전자	-8,073
신한지주	9,455
삼성물산	-7,156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53,443
음식료품	-3,616
서비스업	48,884
금융업	-2,087
화학	41,330
전기가스업	-874
삼성전자	130,229
LG디스플레이	-12,971
NAVER	38,883
현대모비스	-8,636
KODEX 200	28,455
KB금융	-7,826
LG화학	23,906
현대차	-6,709
SK하이닉스	23,771
LG생활건강	-6,394
OCI	21,053
삼성화재	-6,082
대우조선해양	13,242
우리금융	-4,978
삼성전자우	11,079
SK이노베이션	-4,619
현대하이스코	9,631
만도	-4,415
KT	8,951
한화케미칼	-3,216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담배	1,608	IT부품	-1,643
방송서비스	1,052	금융서비스	-1,327
출판,매체복제	549	오락,문화	-1,286
매일유업	1,314	하이비전시스템	-1,384
CJ오쇼핑	1,176	파라다이스	-1,375
원익IPS	612	모두투어	-1,259
로엔	442	파트론	-969
하림	424	서울반도체	-85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소매	437	소프트웨어	-963
음식료,담배	300	디지털컨텐츠	-902
연구,개발	190	금속	-735
비에이치	857	인터플렉스	-1,064
KH바텍	555	모두투어	-792
서부T&D	437	성광벤드	-593
CJ프레시웨이	416	엑토즈소프트	-567
하나투어	371	인프라웨어	-55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383	도매	-218
음식료,담배	344	방송서비스	-197
의료,정밀기기	299	사업지원	-153
인터파크	369	다우데이타	-213
매일유업	343	CJ오쇼핑	-197
뷰웍스	311	모두투어	-182
평화정공	214	서울반도체	-146
인터플렉스	174	동성화인텍	-13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542	금속	-1,342
사업지원	510	방송서비스	-941
인터넷	456	전문기술	-652
하나투어	628	성광벤드	-733
서울반도체	574	CJ E&M	-659
다음	456	메디톡스	-570
매일유업	313	GS홈쇼핑	-555
세코닉스	266	태웅	-50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담배	2,051	소프트웨어	-3,819
반도체	1,555	IT부품	-3,539
출판,매체복제	911	제약	-2,920
매일유업	2,128	CJ E&M	-2,587
하나투어	1,013	솔브레인	-2,345
루멘스	930	하이비전시스템	-1,801
뷰웍스	797	모두투어	-1,766
위메이드	698	코오롱생명과학	-1,736
로엔	639	파라다이스	-1,669
메디포스트	620	서울반도체	-1,603
KH바텍	611	성광벤드	-1,476
세코닉스	581	인프라웨어	-1,465
비에이치	566	파트론	-1,398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4,335	반도체	-7,594
화학	3,388	IT부품	-3,322
도매	3,300	금융서비스	-874
파라다이스	3,239	셀트리온	-3,293
솔브레인	2,478	서울반도체	-3,184
성광벤드	2,454	옵트론텍	-2,825
삼천리자전거	2,321	원익IPS	-2,325
에스엠	2,119	루멘스	-2,216
에스에프에이	2,113	하이비전시스템	-1,519
메디톡스	2,108	이노칩	-930
성우하이텍	1,303	TPC	-856
슈프리마	1,231	차바이오앤	-791
우전앤한단	1,106	인프라웨어	-72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한일시멘트	22 일	SK하이닉스	28 일
락앤락	16 일	KODEX 200	28 일
한국금융지주	9 일	LG하우시스	19 일
삼영전자	7 일	삼성전자	14 일
KB금융	7 일	유니드	12 일
삼성화재	6 일	SK텔레콤	12 일
현대제철	6 일	NAVER	12 일
KINDEX200	6 일	현대백화점	12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92 일	아트라스BX	11 일
매일유업	14 일	동서	9 일
웹젠	6 일	파라다이스	8 일
덕산하이메탈	6 일	태웅	6 일
메디포스트	3 일	에스에프에이	6 일
차바이오텐	3 일	서부T&D	5 일
실리콘웍스	3 일	포스코 ICT	5 일
서부T&D	2 일	CJ E&M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51,617	SK하이닉스	488,210
현대제철	63,959	삼성전자	340,178
KB금융	63,414	KODEX 200	184,403
롯데케미칼	62,412	NAVER	165,945
SK이노베이션	58,920	SK텔레콤	137,182
현대중공업	41,347	현대차	127,023
한국가스공사	39,737	삼성전자우	66,859
엔씨소프트	32,769	OCI	60,211

KOSDAQ			
기	관	외	국 인
매일유업	8,687	솔브레인	17,894
솔브레인	8,662	파라다이스	11,337
서울반도체	5,085	서울반도체	10,802
루멘스	2,282	원익IPS	9,303
하림	1,894	다음	9,191
바텍	1,556	삼천리자전거	7,408
크루셜텍	1,545	성광벤드	6,931
제이콘텐트리	1,355	에스에프에이	5,004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47,342	2,790	50,132
건설업	1,960	4,367	6,327
제조업	1,030	1,988	3,018
LG화학	6,864	23,906	30,770
OCI	8,959	21,053	30,012
KODEX 레버리지	25,080	644	25,724
현대제철	12,118	3,471	15,589
현대중공업	11,790	3,795	15,586
호텔신라	4,980	8,375	13,355
신한지주	9,455	2,192	11,647
두산인프라코어	7,004	3,658	10,662
하나금융지주	3,665	5,484	9,149
강원랜드	4,492	128	4,620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출판,매체복제	911	2,073	2,984
음식료,담배	2,051	107	2,159
의료,정밀기기	261	1,801	2,062
매일유업	2,128	557	2,685
에스엠	272	2,119	2,391
하나투어	1,013	426	1,440
뷰웍스	797	643	1,439
세코닉스	581	361	942
메디포스트	620	276	897
제이콘텐트리	231	549	780
서부T&D	357	290	647
와이솔	465	133	598
하림	481	92	57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NAVER	25 일	락앤락	16 일	에스에프에이	15 일	태광	7 일
삼성테크윈	24 일	일성신약	11 일	태광	11 일	태산엘시디	6 일
삼성엔지니어링	18 일	화신	8 일	성우하이텍	9 일	루멘스	5 일
에스원	17 일	조선내화	7 일	KCC건설	9 일	KTH	4 일
CJ대한통운	16 일	유한양행	6 일	동서	9 일	덕산하이메탈	4 일
KPX케미칼	15 일	삼성화재	6 일	다음	7 일	시그네텍스	3 일
송원산업	13 일	롯데푸드	6 일	하이룩코리아	6 일	씨앤케이인터	3 일
효성	13 일	삼영전자	6 일	파라다이스	6 일	모두투어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387,180	기아차	-66,075	파라다이스	-12,455	루멘스	-3,290
삼성전자	-187,609	LG디스플레이	-59,600	다음	-9,759	인프라웨어	-2,381
KODEX 200	-158,541	삼성화재	-37,694	에스에프에이	-8,083	태광	-1,463
NAVER	-119,792	SK이노베이션	-31,005	성광벤드	-7,038	KG이니시스	-1,331
KT	-73,798	KB금융	-30,113	인터플렉스	-6,327	SK브로드밴드	-1,328
제일모직	-66,053	LG전자	-23,705	포스코 ICT	-6,298	프로텍	-1,242
현대차	-53,901	한국가스공사	-21,049	엑토즈소프트	-5,101	AP시스템	-1,003
현대하이스코	-46,071	대림산업	-18,425	휴비츠	-4,765	셀트리온	-1,00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음식료품	-31,932	-3,616	-35,547	IT부품	-3,539	-3,322	-6,861
의약품	-5,760	-507	-6,268	소프트웨어	-3,819	-473	-4,292
비금속광물	-83	-7	-89	제약	-2,920	-848	-3,768
CJ제일제당	-25,030	-756	-25,786	서울반도체	-1,603	-3,184	-4,786
LG디스플레이	-4,446	-12,971	-17,418	셀트리온	-921	-3,293	-4,214
LG생활건강	-2,672	-6,394	-9,066	하이비전시스템	-1,801	-1,519	-3,320
현대그린푸드	-3,895	-403	-4,299	옵트론텍	-343	-2,825	-3,168
삼성SDI	-3,195	-762	-3,957	인프라웨어	-1,465	-728	-2,193
유한양행	-3,137	-813	-3,950	코오롱생명과학	-1,736	-233	-1,969
엔씨소프트	-1,097	-2,279	-3,377	모두투어	-1,766	-198	-1,964
롯데푸드	-1,024	-2,017	-3,042	파트론	-1,398	-365	-1,763
SK	-2,393	-451	-2,844	크루셜텍	-1,070	-40	-1,109
금호석유	-1,150	-1,461	-2,611	코나아이	-847	-90	-93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한국가스공사	201	12,243	
현대제철	57	4,903	
삼성엔지니어링	56	4,508	
삼성물산	59	3,864	
SK하이닉스	114	3,740	
LG디스플레이	126	3,138	
현대위아	16	2,721	
아모레퍼시픽	3	2,68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원익IPS	92	802	
크루셜텍	49	714	
컴투스	31	713	
메디포스트	9	662	
동국S&C	120	574	
다음	5	495	
포스코 ICT	48	453	
서울반도체	9	384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363	4,835,482	
POSCO	8,922	2,779,258	
LG전자	19,940	1,405,786	
OCI	5,430	1,045,353	
현대차	3,897	1,020,996	
NAVER	1,162	674,038	
현대중공업	2,392	649,551	
SK하이닉스	18,056	597,64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5,202	721,314	
파라다이스	5,652	138,479	
파트론	7,408	127,782	
에스엠	2,536	93,068	
SK브로드밴드	18,652	89,532	
다음	867	80,050	
서울반도체	1,702	75,325	
하나투어	991	63,426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철강및금속	530	기계	-13,753
증권	376	금융업	-9,179
보험	310	운수장비	-3,702
LG전자	1,467	두산중공업	-9,413
KODEX 200	878	우리금융	-4,456
금호타이어	811	두산인프라코어	-4,286
현대상선	682	LG유플러스	-1,876
넥센타이어	654	SK하이닉스	-1,825
동양철관	613	STX팬오션	-1,800
한화생명	528	하나금융지주	-1,648
삼성엔지니어링	526	S-Oil	-1,625
대우건설	424	기아차	-1,513
SG세계물산	402	신한지주	-1,44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1,203	통신장비	-345
정보기기	807	환경	-305
IT부품	406	화학	-242
달리	765	솔브레인	-456
원익IPS	459	SMEC	-450
상신이디피	284	자원	-405
셀트리온	256	KT뮤직	-242
피에스텍	254	하이소닉	-233
STS반도체	223	파트론	-198
컴투스	189	차이나그레이트	-188
SG&G	181	인터플렉스	-180
삼진엘앤디	177	에이스테크	-174
성우하이텍	170	리홈쿠첸	-172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08(화)	10/10(목)	10/11(금)	10/14(월)	10/15(화)
외국인	2,930.3	2,452.1	1,393.5	442.1	161.4	280.2	195.6	314.2
기관계	3,646.4	-1,641.0	-975.9	-430.9	-310.6	129.5	-243.9	-120.0
(투신)	-4,649.7	-879.1	-512.2	-31.9	-90.9	-51.3	-253.9	-84.1
(연기금)	7,978.5	155.7	116.8	60.4	11.8	85.7	-1.0	-40.1
(은행)	-2,145.9	-0.2	-0.4	1.7	-0.2	0.6	2.9	-5.3
(보험)	1,226.4	115.7	98.1	41.5	-33.3	40.4	4.5	45.1
개인	-5,068.2	-541.0	-216.8	27.0	158.6	-275.0	57.0	-184.5
기타	-1,508.6	-270.1	-200.7	-38.2	-9.4	-134.7	-8.7	-9.7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0/07(월)	10/08(화)	10/10(목)	10/11(금)	10/14(월)
KOSPI	2,033.3	1,825.7	1,997.1	1,994.4	2,002.8	2,001.4	2,024.9	2,020.3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5,962.7	15,571.9	15,374.1	15,314.1	15,105.8
(증감액)	1,996.5	3,611.7	334.1	-86.9	-390.8	-197.8	-60.0	-208.3
(회전율)	50.9	34.2	26.7	31.5	38.4	36.3	41.9	36.1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95.9	-553.7	-208.2	-61.0	-90.9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354.2	4,338.4	4,325.2	4,340.8	4,375.6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84.3	170.4	165.7	173.8	182.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0/07(월)	10/08(화)	10/10(목)	10/11(금)	10/14(월)
전체 주식형	86,567	-6,975	-1,631	-135	-66	-139	-186	-715
(ex. ETF)		-8,125	-1,041	-115	-53	-80	-55	-353
국내 주식형	65,212	-3,516	-1,408	-96	-35	-109	-180	-676
(ex. ETF)		-4,696	-827	-77	-24	-52	-49	-317
해외 주식형	21,355	-3,459	-223	-39	-32	-30	-6	-38
(ex. ETF)		-3,429	-215	-39	-29	-28	-6	-36
주식 혼합형	9,948	24	556	-9	-6	10	1	11
채권 혼합형	23,191	4,513	77	7	35	-36	53	-127
채권형	54,861	1,491	506	62	2	85	224	10
MMF	77,230	12,705	4,131	1,234	1,003	-371	-788	6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08(화)	10/10(목)	10/11(금)	10/14(월)	10/15(화)
한 국	2,989	2,296	1,508	411	151	261	183	302
대 만	6,310	1,435	611	105	-	127	116	247
인 도	14,172	770	4	38	123	162	-	-
인도네시아	-926	-73	-333	-8	-21	2	-	-
태국	-3,487	-14	-326	1	34	62	28	-
남아공	2,321	-431	-436	-103	-83	-93	-65	-
필리핀	1,065	-65	-79	3	-14	0	-2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10/07(월)	10/08(화)	10/10(목)	10/11(금)	10/14(월)	10/15(화)
회사채 (AA-)	3.29	3.25	3.26	3.28	3.27	3.29	3.29
회사채 (BBB-)	8.80	8.95	8.97	8.99	8.98	9.00	9.00
국고채 (3년)	2.82	2.84	2.85	2.87	2.86	2.88	2.88
국고채 (5년)	2.97	3.07	3.09	3.13	3.12	3.15	3.15
국고채 (10년)	3.16	3.42	3.46	3.51	3.50	3.54	3.53
미 국채 (10년)	1.76	2.61	2.64	2.71	2.72	2.69	-
일 국채 (10년)	0.80	0.64	0.65	0.65	0.66	0.66	-
원/달러	1,070.60	1,071.50	1,073.70	1,073.60	1,071.40	1,071.50	1,066.80
원/엔	1,243.73	1,102.36	1,105.53	1,103.95	1,091.81	1,091.80	1,087.02
엔/달러	86.08	97.20	97.12	97.25	98.13	98.14	98.14
달러/유로	1.32	1.35	1.35	1.35	1.35	1.36	1.36
DDR3 1Gb (1333MHz)	0.67	1.57	1.57	1.57	1.57	1.57	-
DDR3 2Gb (1333MHz)	1.07	2.33	2.29	2.29	2.32	2.33	-
NAND Flash 16Gb (MLC)	1.89	3.65	3.65	3.65	3.65	3.60	-
CRB 지수	295.01	287.34	285.50	287.38	286.61	287.47	-
LME 지수	3,454.5	3,119.7	3,080.2	3,111.0	3,132.2	3,144.4	-
BDI	699	2,115	2,125	2,011	1,985	1,961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103.03	101.61	103.01	102.02	102.41	-
금 (달러/온스)	1,663.40	1,325.10	1,307.20	1,296.90	1,268.20	1,276.6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12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0월 8일	263.14	264.65	1.25	1.51	1.25	171,649	110,121	636
10월 10일	262.90	263.70	1.21	0.80	1.03	202,910	107,421	-2,700
10월 11일	266.35	268.60	1.20	2.25	1.84	139,826	112,559	5,138
10월 14일	265.81	268.20	1.14	2.39	1.77	89,301	112,801	242
10월 15일	269.02	270.35	1.16	1.33	1.87	127,908	116,107	3,306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0월 8일	-397	-408	621	174	138	-49	262	96
10월 10일	-6,823	2,242	4,130	3,241	401	142	246	100
10월 11일	6,673	-2,531	-3,813	-4,611	502	-26	293	29
10월 14일	-2,753	1,460	1,161	1,453	-462	243	36	-109
10월 15일	-2,685	2,918	-340	-1,509	844	26	134	65
누적포지션	-5,993	3,904	1,534	-880	118	1,371	1,043	-68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0월 8일	628	629	1	613	617	3	14	12	-2	5,054	9,217
10월 10일	1,059	794	-265	981	782	-198	78	11	-67	5,105	9,210
10월 11일	760	930	170	741	871	130	19	59	40	5,107	9,254
10월 14일	611	499	-112	599	480	-119	12	20	7	5,102	9,253
10월 15일	711	819	108	694	767	73	17	5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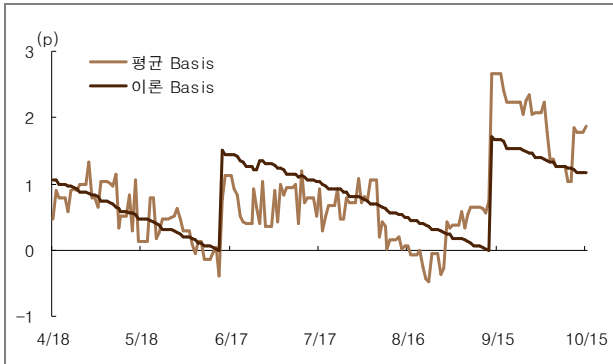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2.38	782	105,874	1.74	275.00	7.00	1,502	628	11.90
12.56	-115	79,704	2.61	272.50	5.40	2,675	209	12.21
12.97	385	14,851	3.80	270.00	4.10	8,309	1,314	12.65
13.10	-159	6,668	5.15	267.50	2.98	26,821	3,206	12.85
13.80	89	2,398	6.90	265.00	2.17	84,759	1,911	13.30
14.20	-35	708	8.75	262.50	1.52	68,247	2,137	13.60
14.78	23	219	10.80	260.00	1.06	80,171	3,425	14.00
14.07	-14	53	12.75	257.50	0.75	61,507	3,522	14.54
15.47	0	23	15.15	255.00	0.52	54,687	4,517	15.01
14.13	5	11	17.30	252.50	0.37	48,739	1,662	15.60
18.14	-4	22	20.00	250.00	0.28	41,468	-1,705	1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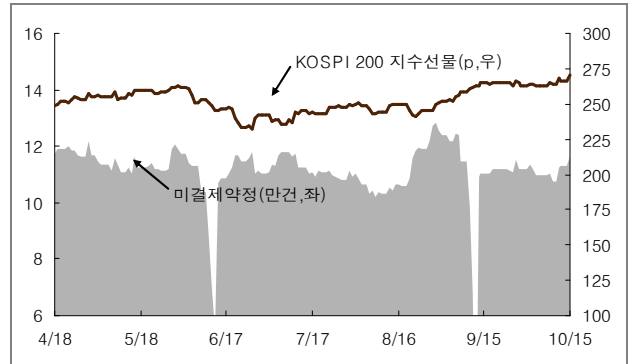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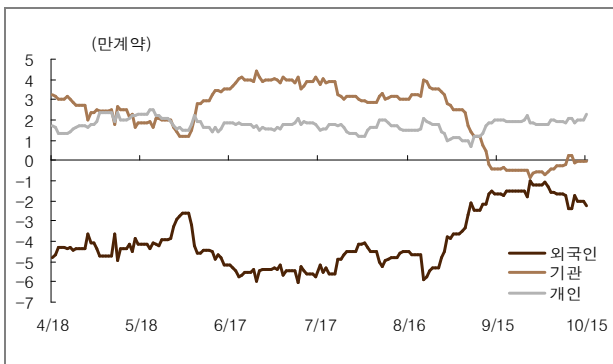
- 평균 Basis: 1.87 (전 거래일 대비 0.10 상승)
- 이론 Basis: 1.16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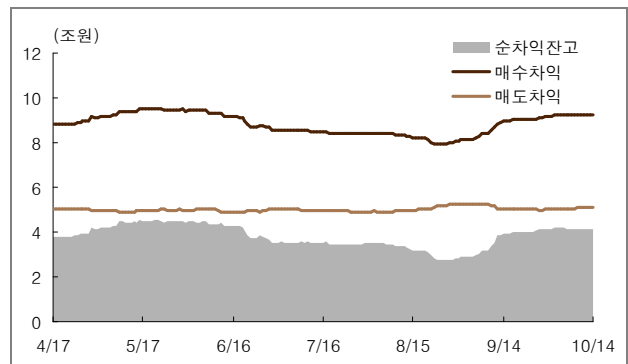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3,306 계약 증가한 116,107 계약
- 선물가격(270.35): 전 거래일 대비 4.54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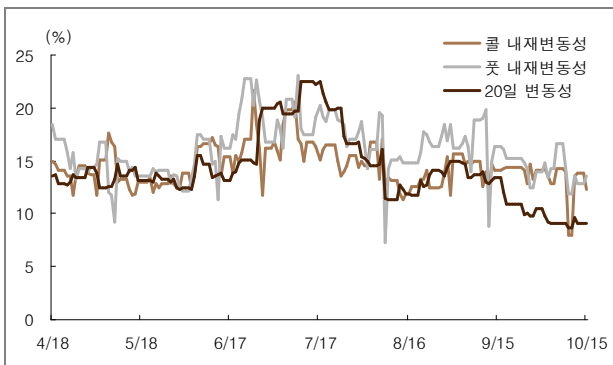
- 외국인: 2,685 계약 순매도
- 기관: 340 계약 순매도 / 개인: 2,918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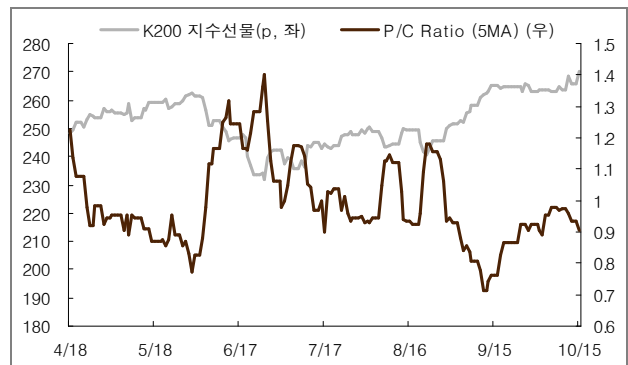
- 차익거래: 351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729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2.3% / 풋 13.6%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9.12%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0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7	8	9	10	11
美> 8월 제조업 수주* (n/a, 0.2%, -2.4%) 9월 비농업부분고용자 변동* (n/a, 17.8만, 16.9만) 9월 실업률* (n/a, 7.3%, 7.3%) 日> 8월 예상 동행지수 (107.6, 107.6, 107.7) 8월 예상 선행지수 CI (106.5, 106.7, 107.9)	美> 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3.9, 94.3, 94.0) 8월 무역수지 (십억 달러) * (n/a, -39.3, -39.1) 10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38.4, 44.0, 46.0) 유럽> 8월 독일 공장수주 (-0.3%, 1.1%, -1.9%) 日> 8월 BoP 경상수지 (십억 엔) (161.5, 525.3, 577.3)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3%, n/a, -0.4%) 8월 도매재고 MoM * (n/a, 0.3%, 0.1%) 9월 FOMC 의사록 공개 유럽> 8월 독일 산업생산 SA MoM (1.4%, 1.0%, -1.1%)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2.50%, 2.50%, 2.5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7.4만, 31.1만, 30.8만) 9월 수입물가지수 * (n/a, 0.3%, 0.0%) 日> 8월 기계수주 (5.4%, 2.5%, 0.0%)	美> 9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 (n/a, 0.2%, 0.3%) 9월 소매판매 추정 MoM * (n/a, 0.2%, 0.3%) 日> 9월 통화량 M2 YoY (3.8%, 3.8%, 3.8%) 9월 통화량 M3 YoY (3.1%, 3.0%, 3.0%) 9월 국내 CGPI YoY (2.3%, 2.3%, 2.3%)
14	15	16	17	18
유럽> 8월 산업생산 SA MoM (n/a, 0.6%, 1.5%) 中> 9월 소비자물가지수 (3.1%, 2.8%, 2.6%) 9월 생산자물가지수 (-1.3%, -1.4%, -1.6%)	美> 8월 기업재고 * (n/a, 0.3%, 0.4%)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0.4%, n/a, -0.7%) 8월 설비가동률 MoM (-2.1%, n/a, 3.7%) 실적발표> 美 코카콜라, 시티그룹, 야후, 인텔, 존슨앤존슨	韓> 9월 실업률 SA (n/a, 3.1%, 3.1%)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1.3%) 8월 순 TIC 흐름(십억달러) * (n/a, n/a, 56.7)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n/a, 57, 58) 연준 베이지북 발간 유럽> 9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n/a, 1.1%, 1.3%) 8월 유로존 무역수지(십억유로) (n/a, n/a, 11.2) 실적발표> 美 애벗, 매텔, WW그레인저, 펍시, AmEx, 샌디스크	韓> 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n/a, -1.3%)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37.4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n/a, 290.5만) 9월 주택착공건수 * (n/a, 91만, 89.1만) 9월 건축허가 * (n/a, 1.0%, -2.9%) 실적발표> 韓 삼성물산 美 이베이, 버라이즌, 구글 골드만 삭스, 유나이티드헬스	中> 3분기 GDP YoY (n/a, 7.8%, 7.5%) 9월 광공업생산 (n/a, 10.2%, 10.4%) 9월 소매판매 (n/a, 13.4%, 13.4%) 日> 9월 전국 백화점 판매 (n/a, n/a, 2.7%) 실적발표> 韓 삼성엔지니어링, 하나금융지주 美 모건스탠리, 텍스트론, 잉거솔-란트, 스트라이커
21	22	23	24	25
美> 9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9월 기존주택매매 日> 8월 최종 동행지수 8월 최종 선행지수 CI 9월 조정 무역수지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8월 주택가격지수 MoM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10월 잠정 Markit PMI 유럽> 10월 유로존 제조업 PMI 예상 10월 독일 제조업 PMI 예상 中> 10월 HSBC 플래시 제조업 PMI	韓> 3분기 예상 GDP SA 8월 BoP 상품수지 美> 10월 미시간대 기대지수 최종 유럽> 9월 독일 소매판매 日>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된 지표는 연방정부 정상화시 발표 예정)

